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해양 바이오산업 주력”

신우철 완도군수

6대 군정 운영 방향 제시...2025 '완도방문의 해' 선포 대규모 국책 SOC사업·정주여건 개선...지역 균형 발전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지역에 큰 활력이 될도록 하겠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신년 화두를 ‘비상천리(飛上千里)’로 정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완도군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지난해 미 항공우주청과 에너지부를 방문해 해조류산업의 비전을 모색하고, 해양치유센터가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해 6관왕을 달성한 점,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음을 언급하며, 주민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완도의 미래 발전을 위한 6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주민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6대 방향은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 ▲완도로서 가능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대규모 국책 사업과 SOC 사업 추진 ▲완도자연그대로 농수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 ▲주민의 삶과 가까운 행복 시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균형 발전 등이다.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5년을 ‘치유의 섬, 완도 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해양치유센터 내실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4천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실현하고, 해안도로 경관 명소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강화할 방침이다.

‘완도로서 가능한 해양바이오산업’에서는 해조류 스마트 팩토리 건립, 해조류 신소재 개발, 외해 해조류 양식 기술 시스템 구축 등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국책 사업과 SOC 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난대수목원, 국립해양수산물 박물관 건립,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등 지역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한 대형 사업에도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수축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복 생산량 조절, 신 품종 개발, 해조류 품종 개발, 축산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농수축산업 경

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의 삶과 가까운 행복 시책’으로는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 출생 기본수당 지원, 청년 공공 임대 주택,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 폭넓은 복지 정책으로 주민 행복을 증진시킨다. ‘정주 여건 개선·균형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 자연재해 위험 개선, 권역 거점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방침이다. 신우철 군수는 “2025년에도 어떠한 난관이 닥치더라도 군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며 “순간의 노력이 미래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목포시가 지난 6일 삼학차고지에서 '목포시 공영버스 출범식'을 개최한 가운데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의 출발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전국 최초 버스노선 공영화 도입

직영·위탁 상호 보완·경쟁 구조...대중교통 전면 운행 중단 막아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노선 공영화를 도입해 목포만의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의 출범을 알렸다.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공영버스 삼학차고지에서 박홍률 목포시장, 조성우 목포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위탁사업자, 버스 운수종사자, 시민 등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시 공영버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목포시 시내버스는 지난 2021년 버스 회사 휴업 신청, 2022년 운수종사자 파업, 2023년 연료비 체납에 따른 운행 중단으로 큰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목포시가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 중 하나

였다. 시는 2023년 2월 시내버스 운행 재개 이후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 공론화를 거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공영버스 체계를 도입했다. 민간이 독점하고 있던 시내버스 노선권을 공영화하고,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면적인 노선체계 개편, 직영과 위탁이 상호 보완, 경쟁하는 운영체계 전환을 연계 추진해 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을 구조적으로 막는 공영버스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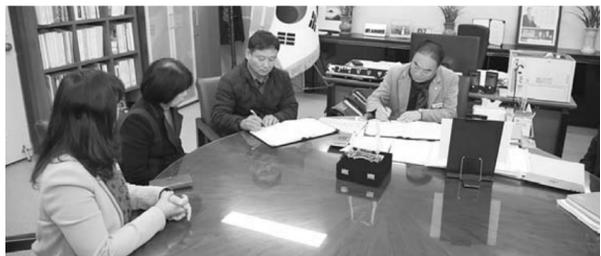
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박홍률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든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기반의 공영버스는 전국 최초이며 전국 여러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는 선도적인 정책”이라며 “더 친절한, 더 안전한, 더 편리한 공영버스를 만들어 더욱 사랑받는 대중교통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공영버스 출범과 동시에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 발광 다이오드(LED) 안내판이 부착된 버스 운영을 시행했으며, 앞으로 버스 정보시스템(BIS) 고도화, 스마트 승강장 확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등을 통해 더 나은 공영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정혜선기자

영광군의회-전남농아인협, 수어통역 협약

청각·언어 장애 군민 알 권리 충족·의정활동 참여 확대

영광군의회는 7일 ‘전날 의정실에서 전남농아인협회 영광군지회와 수어통역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영광군의회 본회의 방송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각·언어 장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본회의의 일정 공유, 수어통역사 배치, 본회의의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등 협약기관 간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김강현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각·언어 장애 군민들의 의정활동 접근성이 더욱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



영광군의회와 전남농아인협이 수어통역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해남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추진

내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3월 중 지급 예정

해남군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에 지급한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2월7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한 달 가량 빨라졌다. 신청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 1회 60만원을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에 처분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 제외된다. 신청은 마을 이장을 통하거나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 1회 6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해 전남도 공익수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관내 1만5천458명에 대해 92억7천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조기에 시행하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신안, 전국 첫 1천억 규모 '해상풍력 군민펀드' 추진

신안, 전국 첫 1천억 규모 '해상풍력 군민펀드' 추진

(주)루트에너지·신안우이해상풍력(주) 업무협약 체결

신안군은 “최근 (주)루트에너지, 신안우이해상풍력(주)과 전국 최초 1천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신안군민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주)한화에너지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신안우이해상풍력(주)은 신안 해역에 국내 최대 규모인 300MW(15MW×26기)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지역 주민, 송·변전설

비 인근 주민, 지역 금융권 등이 해당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 1천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조성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안군민펀드 모델 설계 및 운용 ▲신안군민펀드 가입자에게 조달금리 제공 ▲펀드 홍보 및 조성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으로 수익률 연 13%의 펀드 모델을 개

발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에너지를 대안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며 “해상풍력 군민펀드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함한 발전단지 30개 조성 시, 1인 최대 1억2천만원 투자로 연간 약 1천5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안=양홍기기자

윤재광 영암군부군수 “소통·융합 직장문화 조성”

별도 취임식 없이 본격 업무 돌입

“소통과 융합의 따뜻한 직장 문화, 전남에서 제일가는 공직문화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영암군은 7일 ‘전날 군청에서 열린 정례회에서 윤재광(사진) 서기관이 공직자들과 인사하는 간소한 행보를 제2대 영암군부군수에 취임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 참사 희생자 애도기

간에 취임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에 들어간 윤 부군수는 영암군 공직자들에게 소통과 융합의 공직문화를 강조했다. 나아가 따뜻하게 맞아준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우승희 영암군수의 군정 철학을 함께 잘 펼쳐가자고 당부했다. 윤 부군수는 1994년 전남대를 졸업 직후 여전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등을 거치며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책무를 다해왔다. 특히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장과 농업정책과장을 역임하며 지역인재 육성과 ‘생명의 땅’ 전남의 정책을 총괄하고, 지난해에는 대변인으로 전남의 맛과 멋, 혁신 정책을 전국에 알렸다. 윤 부군수는 31년의 공직생활 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전남지사 등 다수의 포상을 받은 바 있다. /영암=나동호기자

무안군, 제주항공 참사 후 고향사랑기금 15억 돌파

이틀간 11억...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등 사용 예정

무안군은 7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사고 수습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한데 모여 2024년 군의 ‘고향사랑기부금’이 15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기부 건수는 약 1만4천건에 달했고 모금액은 15억5천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부는 ▲서울·경기 59.55% ▲세종시 11.27% ▲전남 8.51% ▲광주 3.95% ▲기타 지역 16.72%의 비율로 이뤄졌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이틀 만에 11억원의 기부금이 모여 전 국민의 애절한 마음을 실감케 했다. 무안군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

해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게 되며, 사고 이후 접수된 기부금은 특별히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에 우선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기부금 사용 내용이 군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기부자들이 본인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많은 사람들의 귀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고 수습과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